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제 목 : 2014년 1월 9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

“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”

(붙임 참조)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장정수

Tel : 759-4066 Fax : 759-4485 E-mail : cschang@bok.or.kr

공보실 : Tel (02) 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
THE BANK OF KOREA

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

[정책결정]

-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(2.50%)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.

[세계경제]

- 세계경제를 보면,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졌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되었다.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,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.

세계경제 성장률							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국내금리 ¹⁾					
(전기비연율, %)							(기말 기준, %)					
		12.3/4	4/4	13.1/4	2/4	3/4			13.10월	11월	12월	14.1.8일
미	국	2.8	0.1	1.1	2.5	4.1	미국	2.55	2.74	3.03	2.99	
							독일	1.67	1.69	1.93	1.90	
유로	지역	-0.5	-2.1	-0.8	1.2	0.3	영국	2.62	2.77	3.02	2.97	
일	본	-3.2	0.6	4.5	3.6	1.1	브라질 ²⁾	11.67	12.63	12.83	12.90	
							인도	8.63	8.74	8.83	8.80	
중	국 ¹⁾	7.4	7.9	7.7	7.5	7.8	인도네시아	7.40	8.60	8.38	8.99	
주: 1) 전년동기비 자료: 미 상무부, Eurostat, 일 내각부, CEIC							주: 1) 10년물 2) 5년물 자료: Bloomberg					

주: 1) 전년동기비
자료: 미 상무부, Eurostat, 일 내각부, CEIC

주: 1) 10년물 2) 5년물
자료: Bloomberg

[실물경제]

- 국내경제를 보면, 수출 및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다.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.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실물경제지표

(전년동기대비, %)

	2012	2013	13.2/4	3/4	4/4	13.9월	10월	11월	12월
GDP 성장률	2.0	..	2.3	3.3	..	-	-	-	-
GDP 민간소비	1.7	..	1.8	2.1	..	-	-	-	-
소매판매	2.3	..	1.1	0.7	..	-1.2	1.7	1.3	..
(S.A, 전기비)	-	-	(0.4)	(1.3)	(..)	(-1.9)	(1.5)	(0.9)	(..)
GDP 설비투자	-1.9	..	-4.6	1.5	..	-	-	-	-
설비투자지수	-2.0	..	-10.0	-4.7	..	-9.1	14.4	6.2	..
(S.A, 전기비)	-	-	(-1.0)	(0.5)	(..)	(-4.0)	(19.4)	(-5.5)	(..)
GDP 건설투자	-2.2	..	7.2	8.6	..	-	-	-	-
건설기성액	-5.8	..	15.6	11.1	..	5.5	17.2	12.0	..
(S.A, 전기비)	-	-	(7.7)	(-1.5)	(..)	(-3.0)	(3.5)	(-0.2)	(..)
수출(통관)	-1.3	2.2	0.7	2.7	4.8	-1.6	7.2	0.2	7.1
(일평균, 억달러)	(20.0)	(20.5)	(20.6)	(20.0)	(21.1)	(22.3)	(22.0)	(20.4)	(20.9)
제조업 생산	0.8	..	-0.8	0.0	..	-3.9	3.3	-1.3	..
(S.A, 전기비)	-	-	(-1.5)	(0.4)	(..)	(-2.5)	(2.3)	(-0.1)	(..)
서비스업 생산	1.6	..	1.7	0.7	..	-0.2	2.8	1.8	..
취업자수 증감 ¹⁾	437	..	324	421	..	463	476	588	..
(공공부문 ²⁾ 제외)	437	..	318	402	..	440	414	517	..

주: 1) 전년동기대비 증감, 천명(연간 및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)

2)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
[물 가]

-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하락폭 확대 및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에 기인하여 전월의 1.2%에서 1.1%로 소폭 낮아졌으며,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.0%에서 1.9%로 소폭 하락하였다.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곡물 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.

물가상승률

(전년동월대비, %)

	13.8월	9월	10월	11월	12월
소비자물가	1.5	1.0	0.9	1.2	1.1
(전월비)	0.4	0.2	-0.3	0.0	0.1
▪ 농축수산물	3.1	-3.4	-5.2	-3.6	-4.2
(농산물)	4.0	-7.0	-10.7	-9.0	-11.3
▪ 공업제품	0.8	0.9	1.1	1.6	1.6
▪ 서비스	1.5	1.5	1.4	1.3	1.3
농산물 및 석유류제외	1.5	1.7	1.8	2.0	1.9
식료품 및 에너지제외	1.3	1.5	1.6	1.7	1.6

- 주택시장을 보면,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다.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전월과 같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.

주택가격상승률

(전월비, %)

	13.8월	9월	10월	11월	12월
주택 매매가격 ¹⁾	0.0 (-0.1)	0.1 (0.0)	0.2 (0.3)	0.2 (0.2)	0.2 (0.2)
▪ 수도권 ²⁾	-0.2 (-0.3)	-0.1 (0.0)	0.1 (0.3)	0.0 (0.1)	0.0 (0.1)
(서울)	-0.2 (-0.4)	0.0 (0.0)	0.1 (0.3)	0.0 (0.1)	0.0 (0.0)
▪ 광역시 ³⁾	0.2 (0.0)	0.2 (0.1)	0.3 (0.3)	0.4 (0.3)	0.4 (0.3)
▪ 지방 ⁴⁾	0.1 (0.0)	0.1 (0.1)	0.3 (0.2)	0.3 (0.2)	0.4 (0.3)
주택 전세가격 ¹⁾	0.6 (0.4)	0.8 (0.5)	0.9 (0.7)	0.6 (0.5)	0.6 (0.4)
▪ 수도권 ²⁾	0.8 (0.7)	1.2 (0.8)	1.2 (1.0)	0.8 (0.7)	0.6 (0.6)
(서울)	0.8 (0.8)	1.1 (0.9)	1.1 (1.0)	0.7 (0.7)	0.6 (0.5)
▪ 광역시 ³⁾	0.3 (0.3)	0.3 (0.3)	0.4 (0.4)	0.5 (0.4)	0.5 (0.4)
▪ 지방 ⁴⁾	0.3 (0.2)	0.3 (0.2)	0.6 (0.4)	0.4 (0.3)	0.5 (0.3)

주: 1) ()내는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

2) 서울, 인천, 경기 3)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

4) 한국감정원 지수는 수도권 제외(5대 광역시는 포함)

자료: 국민은행, 한국감정원

[금융시장]

-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엔화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,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투자에 의해 영향받으면서 상당폭 낮아졌다.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.

금리, 주가 및 환율¹⁾

	13.8월	9월	10월	11월	12월	14.1.8일
CD(91일)금리(%)	2.66	2.66	2.65	2.65	2.66	2.66
국고채(3년)금리(%)	2.88	2.82	2.82	3.01	2.86	2.86
KOSPI	1,926.4	1,997.0	2,030.1	2,044.9	2,011.3	1959.0
원/달러 환율	1,110.0	1,074.7	1,060.7	1,058.2	1,055.4	1,064.9

주: 1) 기말기준

[향후 정책 방향]

-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면서, 성장세 회복이 지속 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.